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거주 터키 무슬림 부모의
문화적응과 자녀양육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BETUL TINKILIC

한국 거주 터키 무슬림 부모의 문화적응과 자녀양육

지도교수 박혜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BETUL TINKILIC

교육학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족 중에서 무슬림 부모의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응 과정과 자녀양육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무슬림 부모 중에서도 터키인 무슬림 어머니, 터키인 무슬림 아버지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과정과 자녀양육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터키인 무슬림 어머니 7명, 터키인 무슬림 아버지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터키인 무슬림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적응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터키인 무슬림 어머니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반면 터키인 무슬림 아버지들은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와 낯선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의 차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부모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도 한국처럼 어머니가 자녀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고 챙기며, 아버지는 주로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역할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해왔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의 어려움과 연결 시켜 이야기 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무슬림으로서 키운다는 것이 힘들다고 대답을 했으며, 자녀의 식생활과 사소한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터키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지만,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할랄과 하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 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이에 이슬람에 대한 인식과 무슬림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대처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터키 무슬림 부모, 문화적응, 사회정체성, 자녀양육
학 번 : 2014-25259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5
1. 다문화사회로 변하는 한국 사회와 다문화가족	5
1)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5
2) 문화적응이론	7
2.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녀양육	12
1)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생활방식	12
2) 무슬림의 자녀양육	16
III. 연구 방법	19
1. 연구참여자	19
2. 자료수집	22
3. 자료분석	23
4. 연구자의 관점	26
IV. 연구 결과	27
1. 한국 거주 터키 부모의 문화적응 과정	27
1)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터키와 한국	27

2) 언어장벽에 대한 인식	33
3) 한국에서의 다른 삶에 대한 기대	37
2.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녀양육	39
1)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기	39
2)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아이 키우기	41
3) 달라진 부모의 역할	45
V. 결론 및 논의	50
1. 결론	50
2. 의의와 한계	53
참고문헌	56
Abstract	62

표 목 차

<표 1>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8
<표 2> 연구참여자	21
<표 3> 자료 범주화 목록의 예	25

I. 서론

1. 문제제기

21 세기 이후 세상은 빠르게 지구촌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동시간의 단축과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이 쉽게 가능해져 국가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되었다 (남부현·김지나, 2016). 세계화의 결과로 140여개의 국가들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자 다문화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텐옥사나, 2011).

한국도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동질한 민족문화를 유지하면서 외국과 외국인에 대하여 폐쇄성을 지녀왔으나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외국과의 접촉이 증가하였고, 세계화의 열풍 속에서 이들과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정진경·양계민, 2004). 또한 2000년대 초반, 정부는 국내 노동자의 고학력화에 따라 단순 노동직 기피현상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고용허가제(2004)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약 61만여 명에 이르렀으며(법무부 통계월보, 2016)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힘입어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집단이 새로운 주요 이주 집단으로 부상했다(오종진, 2009).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 추세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면, 2020년에는 외국인 이민자와 그 자녀수가 총 인구의 5.5% 수준인 27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를 향후 늘어나게 될 다문화가정의 자녀수가 머지 않아 한국 사회의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김지윤, 2014).

다문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한국에 무슬림 외국인 이민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1980년도 말부터 많은 수의 이슬람 문화권 출신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 내에 자리 잡고 활동하게 되었다(송도영, 2011). 이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 아시아계 이주 노동자들과 기타 북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산업노동자가 아닌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유입해 들어오는 인구까지 합쳐서 한국 내의 무슬림 인구는 역동적으로 증가하였다(송도영, 2011). 2007년도 법무부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들 약 100만명의 이주민들 중 한국사회 내 무슬림의 수는 등록 이주자와 미등록 이주자를 포함하여 약 104,427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한국 거주 외국인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슬람 문화권 이주민들의 경우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이슬람포비아 문제나 일부 우파 기독교 단체들에 의한 한국의 이슬람화 가속화 우려 표명과 맞물려 더욱 세심한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 거주 무슬림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중동학회, 한국이슬람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조희선, 안정국, 오종진, 김효정 등과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학-인류학적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포함하는 비교적 대규모의 정교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이희수·조영주, 2012).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는 외국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여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주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정진경·양계민, 2004). 이주 집단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경험, 특히 인종적, 민족적으로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은 무슬림들의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한국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정진경·양계민, 2004). 김지윤(2014)의 연구에서는 대다수 한국인은 다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수년 사이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려면 새로운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도 역시 이해와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새롭게 적응하는 사람들과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한국에서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함께 무슬림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려면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이 중요한 만큼 한국 사회가 무슬림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서 무슬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무슬림들의 한국 생활, 문화적응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 지역 출신의 이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김수재, 2006).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터키인 무슬림을 초점으로 두며 이루어질 것이다.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뿌리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터키 간에 인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터키인의 99%는 이슬람교를 믿으며, 이슬람적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터키 사람들이 무슬림이 드문 나라에서 종교적 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한국 사회는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문화차이로 인한 터키 무슬림 부모의 적응의 어려움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거주 터키 무슬림 부모의 문화적응 과정과 자녀양육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문화적응을 하려면 상호작용이 중요하여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문화적응의 유형이 달라진다. 또한 개인의 성격, 속해있는 환경 등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중 한국 거주 터키 무슬림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즉, 무슬림이라는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터키 무슬림 부모들이 비무슬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슬림 부모들의 문화적응 과정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에서 무슬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무슬림 가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아버지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거주 터키 무슬림 부모의 문화적응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하루가 다르게 무슬림의 수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연구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거주 무슬림 부모의 문화적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 문제 2]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면서 자녀를 키우는 경험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터키인 무슬림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화적응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국문화에 적응을 어떻게 하는지, 적응하는 과정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터키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새로운 경험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의 차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문화적응 과정과 자녀양육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적응하고자 하는 터키인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의 무슬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한국에서 무슬림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채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다문화사회로 변하는 한국 사회와 다문화가족

1)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다문화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제결혼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주외국인은 2014년 5월 31일 기준으로 160만 명을 넘어 1,676,715 명에 달한다.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주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현상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0년에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즉, 전체 인구의 20%가 다문화 가정이 될 상황으로, 전년 대비 16.4%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길연, 2014).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범주화 하면 크게 언어 능력의 부족, 정체성의 혼란 문제,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 경험으로 나타난다(박지은, 2016). 박영아(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발달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어머니들은 자신의 언어, 민족,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자녀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자녀에게 죄책감을 보였다. 허미화(2009)는 몽골출신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의 정체성과 육아에 부여하는 의미를 조사한 결과 이주한 사회에 대한 언어, 문화, 사회적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가족 안팎에서 주변인으로 존재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 시선과 차별적 대우를 경험하고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좌절감을 겪고 있었다. 또한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최혜지(2009)의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이주문화에 적응수준 모두 낮은 주변화유형과, 원문화유지와 이주문화에 대한 적응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유형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이 낮을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한국인과 민족적으로 유사한 유래를 가진 이민자자의 한국문화학습이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특히 외국인 혼인이민자 가운데 이주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갈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다수가 불교 또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이에 반해 무슬림 혼인이민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관습과 가치의 보존, 그리고 한국에서의 문화적응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김대성, 2008). 중동 지역에서 유입된 비아랍 무슬림 혼인이민자는 주로 터키인과 이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 문화적응 과정이 개인의 종교적 성향과 능력에 따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김대성, 2009). 한국이주 아랍 무슬림의 결혼과 정착을 다룬 조희선(2009)의 연구는 한국인과 결혼한 아랍 무슬림들이 고유의 문화적, 종교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반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에 문화적으로도 동화하려는 태도나 의지를 보였던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다양하며 그 중에 일부는 출신 국가가 다른 무슬림 결혼이주민들이다. 출신 국가에 따라 이들의 문화적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와 달리 가족과 한국에 온 무슬림 터키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문화적응 이론

적응이란 주어진 환경조건에 맞추어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의 주체적 의지와 능동성이 강조된 개념이다(김귀옥, 2000). 따라서 문화적응은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능동적 과정 또는 결과로 정의될 수 있다(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이주해 온 집단의 문화와 토착집단의 문화 사이에 지속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심리적 교환을 수반하기 때문에(Cabassa, 2003) 이주집단의 문화와 토착집단의 문화, 모두의 적응을 전제로 한다(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 문화적응은 이차적 사회화의 의미로 개인이 태어나고 자란 문화에 적응한다는 의미가 아닌,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문화에 반응한다는 것으로 문화화와 차이가 있다(권미경, 2009). 문화적응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용어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erry, 1990). Ward, Bochner 및 Furnham (2001)는 문화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확인했으며, 이들을 '문화적응의 ABC'라고 불렀다. 'ABC'는 각각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Berry(1997)가 정의한 문화적응이란 두 집단 또는 그 이상의 문화집단 간의 접촉의 결과로 인한 문화 특성, 심리적 변화 과정이다. 이는 식민지화, 거주이전(이민, 관광, 유학, 해외파견 등) 등의 이유로 발생한 상이한 문화 간의 접촉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이나 상대 모두의 문화에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을 뜻한다. Berry는 문화적응 모델을 두 가지 유형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 하였는데, 자신의 문화적 특성의 유지 여부와 주류 사회와의 관계의 유지 여부를 기반으로 설명했다. 그 결과 Berry(1997)는 문화적응 모델을 통해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라는 4가지

문화적응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아니다
주류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아니다	분리(seg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개인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른 문화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동화(assimilation) 전략이 사용된다. 여기서 개인은 자신의 전통 문화에서 벗어나 지배적인 사회에 흡수되기를 선호한다. 대조적으로 개인이 원래 문화를 간직하는데 가치를 두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려고 할 때 분리(separation) 전략을 사용한다. 여기서 개인은 다른 문화 집단과의 관계에 등을 돌리고 자기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 하면서 자신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을 때 선택하는 전략이 통합(integration)이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진실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동시에 더 큰 사회적 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참여할 민족 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통 문화 유지에 대한 가능성이나 관심이 거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을 때 주변화(marginalization) 전략을 사용한다(Berry, 2005).

문화적응의 형태와 양상은 집단 속의 개인들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속하게 되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 정치, 가치체계에 따라 달리 적응되는 유동적인 성향을 가진다(Berry, 1997). 즉, 이민자가 적응유형

중 하나의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른 전략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신정희, 2010). 예를 들어, 가정이나 모국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문화를 유지시키려는 행동은 함으로써 “분리” 유형에 가까울 수 있으나, 한국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좀 더 한국 사회의 기준이나 가치에 해당하는 행동을 선호함으로써 “통합” 또는 “동화” 유형으로 귀속될 수 있으며(양옥경, 2007; 정진경·양계민, 2004), 개인적으로 언어적, 정치적 영역에서 “통합”을 선택할 수 있다. Berry에 따르면 문화적응은 문화적, 정신적 변화의 이중 과정으로 둘 이상의 문화 집단과 개인 구성원 간의 접촉의 결과로 발생한다. 집단에게는 사회 구조와 제도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또한 개인 구성원에게는 개인의 행동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적응은 장기적으로 두 집단 간에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음식 선호를 공유하며, 각 문화의 특성인 의상과 사회적 상호작용 형태를 채택하는 것을 수반한다. 때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문화 간 갈등과 문화적 상호작용을 거치며 적응적 스트레스를 만들 수도 있다(Berry, 1992). 예를 들어,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지는 과정도 개인의 선호와 사회적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더 쉽게 적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음식의 맛과 향에 적응하지 못 한다.

문화적 집단과 개인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다양성도 존재한다. 가족 내에서도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서로 다른 목표에 따라 갈등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적응이 더 어려워진다(Berry, 2005). 어떤 가족들은 잘 적응하지만 어떤 가족들은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족 내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적응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가족 구성원은 새로운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도 있고, 다른 구성원은 언어로 인한 상호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Graves (1967)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한 문화 영역에 같은 방식으로 들어와서 참여하거나 변화하지는 않는다. 같은

문화 영역에서 사는 개인 간에도 심리적 문화적응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국인의 외국 적응이나 외국인의 한국 적응에 대한 심리학 연구,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특성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많지 않는 실정이다(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로 조기유학생의 인터넷 상담의 효과를 다룬 연구(박영숙·최상진·박광배·김주한, 2002), 조기유학생 적응 시도에 관한 연구(한준상·박현숙·기영화·강양원·메리엄, 200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한성열·채정민, 2003)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김대웅(2016)의 연구,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에 대한 권윤정(2016)의 연구와 김희정(2015)의 연구가 있다.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이민자와 유학생과 같이 국외 이동으로 문화적응이 불가피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심리적 갈등 등 정신 건강에 대한 초기 연구를 시작으로 문화학습 접근, 스트레스 대처 접근, 사회정체감 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였다(Chung, Chung & Yang, 2004).

문화적응 이론은 서구나 미국의 연구들 대부분 미국에서 캐나다 사회로 이주한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는 13개국의 청소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정체성, 문화적인 지식, 언어 사용, 사회 접촉, 가족과의 관계의 가치가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이 이주나 이민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화적응 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담론을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이 된 터키 출신 이주가족들의 경우는 터키인이자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의 소수자로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John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화학습 접근법은 새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문화접촉(cultural contact)으로 인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문화 이주자들이 언어가 서툰고 문화적 기술이 부족하여 일상적인 사회적 만남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발생된다고 가정한다(권미경, 2009). 즉, 언어적 의사소통이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Bochner(1972)는 개인이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언어 등의 문화와 관련된 행동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적 학습 접근법은 언어, 비언어적 구성 요소, 규칙, 관습, 규범 및 다문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다문화 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Berry & Sam, 2010). 언어 기술은 새로운 문화 사회에서의 일상 업무 수행과 사회에서의 대인 관계 구축에 모두 관련된다. 문화 학습 접근법은 언어 유창성과 사회 문화적응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정한다.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은 새로운 문화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증가와 사회 문화적 부적응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Ward & Kennedy, 1999).

사회문화적응은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주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협하고 문화적으로 일정 기술을 습득하여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거나 조정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즉, 문화학습 또는 사회적 기술획득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이주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정보와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 특히 언어의 습득과 다양한 제도 규정들에 대한 이해, 심지어 이주사회에서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까지 포함한다. 이주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해 기본으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 특히 언어의 습득과 다양한 제도적 규정들에 대한 이해 등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언어를 비롯한 법과 제도, 관습, 문화습득과 같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는 단순히 모국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한국사회 문화에 동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 사회의 문화, 습관, 가치, 생활양식 등에 자신을 통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최운선, 2007).

터키 부모들은 이주자로서 새로운 한국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한다. 이 연구에서는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에 따라 무슬림 부모들의 문화적응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무슬림 터키 부모의 문화적응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지를 다룰 것이다.

2.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녀양육

1)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생활방식

무슬림에게는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무슬림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슬림으로서 정체성을 만들며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인식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하는 것과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에서 삶의 방식을 정하는데 있어 할랄과 하람이라는 것이 있다. 즉, 할랄과 하람의 규칙을 바탕으로 생활을 한다.

이슬람에서 “할랄(halal)”의 개념은 종교와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허용’된 행동이나 사물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 되는 개념은 “하람(haram)”이다. 따라서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금기와 규제로 무슬림들의 행동 기준으로 작용한다(Azmi, 2003, 최영길, 1997). 이에 입각해 성립된 음식에서의 할랄은 신에 의해 소비가 허용된 음식을 말한다. 이슬람에서 음식에 적용되는 할랄은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의 근원인 유대교의 경전이며 성서에도 포함된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금기와 허용의 범주를 따른다. 이에 더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과 모범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성립된 하디스의 내용까지 참고하여 할랄 음식의 개념이 완성되었다(김정위, 1998).

코란에 나와 있는 할랄-하람에 대한 언급에 대해 알아보자면 코란의

구절 중 4가지 구절에서 금지된 동물의 고기와 동물성 식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느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 하느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바까라, 2/173).”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 고기와 하느님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가 아닌 것, 목 졸라 죽인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야생이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에 제물로 바쳤던 것과 화살에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거늘 (마이다, 5/3).”

“일러가로되 내기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느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치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느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안암, 6/145).”

“죽은 고기와 피를 금지하셨고 돼지고기와 하느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것도 금지하셨으며 필요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한계선을 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하느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니라 (나흘, 16/115).”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 먹는 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행위이다(엄익란, 2011). 그러므로 생산부터 제조과정, 운송, 보관 등이 모두 이슬람 교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인간에게 베푼 의미로 보았을 때에 할랄은 음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연관된 모든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김종도, 2016). 할랄은 이슬람에서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뜻한다(김종도, 2016).

일부 육류뿐만 아니라 술도 이슬람에서 하람으로 정의된 것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술을 금지한 것은 물론 인간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술의 범주에 넣었으며 맥주나 발효가 된 주스류도 이에 속한다(김종도·최영길, 2014). 예를 들면 마시던 주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어 술이 되는 경우도 하람이다. 하디스 전승자 부카리에 따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은 술이며 술은 하람이다. 이에 따라 인성을 흐르게 하며,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음료는 하람이다. 또한 하디스 전승자 이흐마드, 아부 다우드와 티리미에 따라 “취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양이 적든 많은 모두 하람이다.” 한 통의 술이 취하게 한다면 그것의 한 모금도 하람이다(김종도·최영길, 2014).

제2대 칼리프인 오마르는 예언자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술이 제공되는 자리는 앉지 마라라고 전하고 있다. 이슬람은 죄와 관련된 상황은 피하라고, 즉 오만한 자리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술은 악마의 씨앗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나사이가 전하는 하디스에 의하면 술은 만악의 어머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김종도·최영길, 2014).

“알라께서는 성서에서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시었으니 너희가 알라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불신하며 조롱하는 자 있었느니라. 그들이 다른 화제로 돌릴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함께 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느니라(푹셀라트, 41/40).”

이슬람에서는 할랄과 하람에 관한 기준이 엄격하다. 할랄과 하람을 구분하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무슬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되고 있어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종교적 의무이기도 하다. 할랄과 하람에 관한 이야기는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슬람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통하여 동료나 추종자들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 코란에 다소 해석이 애매모호한 것은 샤리아(Sharia':이슬람법)의 제2법원인 하디스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디스는 이슬람법 해석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김종도·최영길, 2014). 하디스에서도 할랄, 하람에 대해

언급을 한다. 코란에서 설명되어 하디스로도 지지되는 할랄-하람 개념에 대해 무슬림들은 민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할랄의 의미는 주로 음식에 대한 금기로만 알려져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할랄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행동에 대한 관습과 규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한 이후 어떻게 설거지를 하고 정리해야 하는지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옷을 입는 방식이나 목욕을 하는 방식과 화장실에서의 신변처리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할랄의 규칙이 있다.

이슬람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사는 것은 힘들다고 인식된다.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와 할랄과 하람의 규칙에 따른 생활방식이다. 무슬림의 기도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다섯 번 올리는 것이지만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맞춰 다섯 번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농업이나 유목시대가 아닌 현대 산업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직장생활은 기도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역과 종족, 나라에 따른 차이들도 있는데, 어느 무슬림 국가의 국민들 중 많은 성인들은 하루 다섯 번의 기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고 있고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송도영, 2011). 터키의 경우는 어디든 이슬람 사원이 있으며, 직장, 백화점 같은 곳에 예배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심지어 많은 학교에도 예배실이 있다. 따라서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무슬림이 소수자인 나라에서 예배실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원의 수도 적기 때문에 하루 다섯 번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기도를 하지 못 할 때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음식의 대한 문제이다. 한국의 전통적 음식문화에서 고기에 대한 금기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돼지고기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며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중요한 행사인 회식의

기반이 술과 돼지고기이다.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에 따라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그러한 자리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회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의 무슬림들이 음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기 중 가장 중요한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이선영, 2007). 무엇보다 음주와 고기 소비가 개인적인 음식섭취보다는 회식, 즉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음식’이라는 상황에서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슬람식으로 음식에서 할랄과 하람을 구분하게 되면 한국문화에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송도영, 2011).

이 논문에서 문화적응을 하면서 한국의 회식 문화와 코란의 말씀 사이에서 무슬림들은 어떻게 행동 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나아가 양육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이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2) 무슬림의 자녀양육

이슬람교는 교육을 중요시하여 어린 나이부터 자녀양육을 강조한다. 이슬람 교육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것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이다. 코란에 바탕을 둔 이슬람 교육은 개인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온전한 무슬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무슬림의 결속을 다지는 움마를 형성하여, 현세와 내세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범중, 2013). 양육에 대해 코란과 하디스에서도 언급을 한다.

“자녀를 잘 키워야 알라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디스)

“자녀가 3살이 되면 테위히드를(하느님이 오직 하나라는 것), 4살이 되면 예언자 무함마드를, 6살 되면 기도하는 것을, 7살이 되면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라.”(하디스)

“쿠란을 읽고, 배우고 쿠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부모에게 부활 날에 하느님께서 태양의 빛만큼 눈부신 빛으로 만든 왕관 주실 것이다. 그 때 그 부모는 우리에게 왜 이것을 주시냐고 물어볼 때 너희 자식이 쿠란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디스)

이슬람교 예언자 모함마드가 하디스에서 부모가 딸 3명을 참된 무슬림으로 키우면 그 부모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올바른 교육과 도덕성보다 귀한 유산을 남길 수가 없다.” (테베라니)

“믿는 사람들이여 인간은 들들이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불로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과 자식을 구하라.” (타흐림, 6)

위에 쿠란의 구절은 자기, 자기의 가족과 자녀를 지옥으로부터 구하려면 먼저 자기부터 선한 무슬림이 되며, 그 다음에 자녀를 잘 키워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와 7살까지 어린 아이처럼 같이 놀아라, 15살까지 친구 되어라, 15살 이후에 서로 논의를 하라.”(갈리프 알리)

이슬람교에서는 자녀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종교적으로 참된 무슬림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까지 중요하게 여긴다. 인구 비율로 본다면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미미하지만, 취업이나 혼인 등의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무슬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인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서범종, 2013).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 사회 내에서 무슬림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무슬림 터키 부모는 자신이 어렸을 때 이슬람 교육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받았지만 비무슬림 한국에서 소수자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 터키에서는 생각도 안한 것들은 비무슬림 환경에서 신경 쓰게 될 것이며, 해결 방법을 찾아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슬림 터키 부모들은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양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질적연구는 참여자인 내부자의 시각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이론이나 가설로서 현장을 설명하거나 개념화하기보다는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위하고 있는지를 찾고 기술하는데 그 기본 목적을 둔다.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질적연구의 특징이다.

질적연구의 다른 특징은 특정한 사례에 대해 연구의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일반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한 사례나 사건, 현상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질적연구를 사례연구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다. 대단위의 사례가 아니라 특정한 사례를 연구하기 때문에 양적연구에 비하여 사례의 수는 상당히 적다. 이 연구에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터키 부모의 문화적응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례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특정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세상을 ‘구성’과 ‘해석’의 관점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구성주의와 해석주의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구성주의의 관점을 적용한 질적 연구에서는 사물이나 현상의 맥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논리와 언어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진다. 또한 해석주의의 관점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 담겨 있는 주관적인 의미를 연구참여자의 언어와 행동, 문화적인 상징을 통해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Schwandt, 1998). 따라서 질적 접근에서는 “연구대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연구참여자”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 이는 연구의 과정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되며,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조용환, 2002).

이 연구의 참여자는 터키 어머니 7명, 터키 아버지 4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 아버지들의 연령은 30대 초반이며, 어머니들의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이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터키 무슬림들이 한국에 입국한 시기는 4년에서 18년 정도이다. 아버지들의 학력은 고졸 한명 이외에 모두 대졸이며, 어머니들의 학력 수준이 아버지들보다 높은 편이다. 고졸 2명, 대졸 한 명 이외의 어머니들은 석-박사 졸업자이다.

한국어 수준은 다양했다. 아버지들의 한국어 수준이 초급정도인 아버지도 있는 반면 한국어 수준이 높아 언어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아버지들도 있었다. 어머니들의 한국어 수준도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급 정도인 어머니도 있는 반면 한국어 수준이 높은 어머니도 있었다.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이름 대신에 익명으로 명명했다. 어머니들을 M으로 아버지들을 F로 표시했으며 인터뷰 한 순서를 주의해서 M1, M2, F1, F2 등으로 표시를 했다.

<표 2> 연구참여자

	국적	나이	학력	아내/ 남편 국적	아내/ 남편 종교	자녀 수	자녀 나이	자녀 학력	자녀 언어	자녀 종교
F1	터키	30대 초반	고졸	터키	이슬람	딸 2명	2살, 6살	어린이집	터키어, 한국어	이슬람
F2	터키	30대 초반	대졸	터키	이슬람	아들 1명	4살	어린이집	터키어, 한국어	이슬람
F3	터키	30대 초반	대졸	터키	이슬람	아들 1명	3살		터키어	이슬람
F4	터키	30대 초반	대졸	터키	이슬람	아들 1명	5살	어린이집	터키어, 한국어, 영어	이슬람
M1	터키	30대 초반	석사 졸업	터키	이슬람	아들 1명	4살	어린이집	터키어, 한국어	이슬람
M2	터키	30대 후반	대졸	터키	이슬람	딸 2명	4살, 9살	어린이집 초등학교	터키어, 영어	이슬람
M3	터키	40대	고졸	한국	이슬람	아들 1명	7살	어린이집	터키어, 한국어, 영어	이슬람
M4	터키	20대 후반	고졸	터키	이슬람	딸 2명	2살, 6살	어린이집	터키어, 한국어	이슬람
M5	터키	30대 초반	박사 졸업	터키	이슬람	아들 1명, 딸 1명	아들 10살, 딸 4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아들: 영어 딸: 터키어, 한국어	이슬람
M6	터키	30대 초반	박사 졸업	터키	이슬람	아들 1명	5살	어린이집	터키어, 한국어, 영어	이슬람
M7	터키	30대 후반	석사 졸업	터키	이슬람	아들 2명, 딸 1명	아들 1살, 7살 딸 9살	어린이집 초등학교	터키어, 한국어, 영어	이슬람

2. 자료 수집

Holstein과 Gulbriun (1997)은 면담자나 피면담자 모두 현상을 구성하는 동등한 참여자인 특성을 반영하는 면담을 적극적 면담 ‘active interview’ 이라 표현했다. 즉, 면담은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경험의 구체적인 조각과 사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반응하는 때 순간마다 면담의 참여자들은 그러한 조각과 사실들을 상호 구성적으로 더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하며 때로는 변형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면담에서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양자 모두 면담 기술을 공유하여야 하며, 이들 양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상적 지식을 함께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2017년 3월 29일까지 연구참여자와 적극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국거주 터키 무슬림이라는 연구참여자의 특정상 연구참여자들의 선정은 연구참여자가 사전에 알고 있는 기관과 지인들을 통하여 눈덩이 표집을 통해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은 1회 진행되었고, 면담 언어는 터키어와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터키어로 된 인터뷰의 경우에는 연구자 본인이 터키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터키인 어머니 M7와 터키인 아버지 F2는 면담을 한국어로 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나머지 터키인 부모와의 면담이 터키어로 이루어졌다. 어머니 참여자들은 약 90분 간, 아버지 참여자들은 약 60분 간 면담이 진행이 되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면담자들에게 동의서를 제공하였으며 개인 정보 노출과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고지한 후에 서명을 받아 면담을 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 본인이 편하게 면담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하였다. M1, M2, M6, M7 어머니들은 집이 편하다고 하여 각자의 집에서 진행하였으며, M3과 M5은 카페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M4 같은 경우는 남편의 직장에서 면담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먼저 어머니와 면담을 진행하고 어머니의 면담이 끝난 후에 남편인 F1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아버지 F2와는 카페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F3은 자신

의 직장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직장에서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F4 아버지는 바쁜 회사생활로 인해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녹음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무슬림 터키 부모들이 한국거주 하면서 문화적응 하는데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마다의 배경을 알 수 있게끔 터키에서 삶의 대한 “터키 어디서 사셨나요?” “터키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등 질문을 하였다. 그 다음에 대한 기대와 계기를 알 수 있게끔 한국에 오게 되는 계기와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국에 이주하기 전에 기대를 하였는지 등 질문을 하였다. 한국에서 삶에 대해 알 수 있게끔 터키 사람으로서 사는 것, 무슬림으로서 사는 것 또한 터키인이자 무슬림으로 한국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한국거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3. 자료분석

질적연구에서 범주화 전략은 흔히 코딩(coding)이라 부른다. 질적연구에서 코딩은 연구자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또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다루는 작업이다. 이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틀을 세울 수 있도록 광의의 텍스트를 분류-범주화하는 방식이 코딩이다. 이러한 범주는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 중 발견된 분류 틀, 또는 연구참여자들에게서 얻어진 범주의 틀(emic categories)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조영달, 2015).

자료분석을 위해 먼저 인터뷰를 진행할 때 녹음했던 파일을 청취하면서 전사를 하였다. 터키어로 이루어진 면담 내용을 터키어로 전사하였으며, 이후 한국어로 번역했다. 한국어로 이루어진 면담 내용은 그대로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를 토대로 자료들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참여들의 자주 쓰는 단어를 찾고 그 단어들과 관련되는 주제를 분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주 쓰는 문화적응,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 언어적인 어려움, 문화 차이, 유사한 문화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3> 자료 범주화 목록의 예

원자료	하위범위	범위
“처음 왔을 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물론 힘들었죠. 1년 많이 힘들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웃음) 물론 외국 나가면 음식 같은 거.. 음..또 다르잖아요. 한국인이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많이 쳐다보잖아요. 그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터키와 한국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언어 문제가 있어요. 한국어를 못해요. 아주 초급이에요.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할 수 없어요. 안부만 묻고 더 이상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언어장벽에 대한 인식	문화 적응
“큰 문제가 인정 못하는 것 다르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힘들잖아요. 외모 갖고 편견을 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허잡 쓰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피하거든요.”	한국에서의 다른 삶에 대한 기대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서 이해해주는데 무슬림으로서 이해해주지 못 해요. 그게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식 문제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사탕, 과자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먹는 게 조심해야 해서 아이들에게 아무거나 안 줘요.”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아이 키우기	자녀 양육
아들이 아직 세 살밖에 안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문제는 단 하나예요. 음식 문제. 그것 때문에 보낼까 말까 고민중이에요.	달라진 부모의 역할	

4. 연구자의 관점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도구이며 연구 결과의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으로, 직접 현장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자료분석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강조된다. 따라서 연구자의 경험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거주하는 터키 부모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 연구자는 한국에 아무 편견이 없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기대와 편견을 갖고 온 다른 터키인 유학생 친구들의 경험을 직접 관찰했으며 다양한 인식과 그 인식이 개인마다 한국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하였다. 물론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얻는 경험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거나 회사 일을 하는 아버지들의 경험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경험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터키 문화와 한국 문화를 함께 경험했으며, 다른 터키 유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 부모들의 경험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문화와 한국에서 거주하는 터키 부모의 이야기를 분석하는데 면담 내용의 객관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IV. 연구 결과

1. 한국거주 터키 부모의 문화적응 과정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일 때문에, 어머니들은 일, 유학,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들 각각은 개인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달랐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하여 왔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문화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떤 어머니는 한국에 이미 살고 있는 남편한테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높은 기대를 하고 온 반면 잠시만 살 거라고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온 어머니도 있었다.

1)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터키와 한국

터키와 한국의 관계는 6.25 전쟁 이후로 다시 이어졌지만 터키와 한국의 역사는 고구려 시대까지 유래된다. 터키는 유라시아 나라이며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먼 한국과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터키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편할 거라고 생각된다. 연구자 본인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민족, 종교, 문화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다고 느꼈으나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중요성, 호도,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기, 바닥에 앉으면서 식사하기, 바닥에 이불 깔고 자기 등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보기 힘든 관습이 두 나라에서 비슷하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점은 문화적 차이점을 극복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 다른 점도 많다. 또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은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더 잘 적응하는데 비해 어떤 사람은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피할 수 없는 회식, 술 문화 같은 것은 적응이 쉽지 않는 일이며,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에 있어 터키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과 친해지는데 큰 어려움을 느껴 소외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자 본인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것은 오랜만에 다시 한국을 온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었으나 차이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해 봤다.

문화적응은 개인의 경험과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하기 위해 온 M3와 유학 온 M5 제외한, 어머니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한국에 있는 남편을 따라 왔다. 따라서 혼자 와서 적응하는 것과 가족과 함께 와서 적응하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참여자들의 적응하는데 공통적으로 어려워했던 것은 언어, 식생활 또한 한국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이었다.

아버지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으며 한국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편견 없이 온 것으로 보였다. 한국에 오기 전에 기대와 관련되는 언급은 특별히 하지 않았다. 아버지들 중에 F2는 처음에 유학하러 왔을 때, 한국과 터키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처음 왔을 때 문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한국 오기 전에도 관광지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문화의 여러 사람이랑 만났고 한국 문화가 다른 서양 문화보다 터키 문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F2의 이야기)

터키의 인사 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 사회에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한다. 허리를 많이 굽힐수록, 속도가 느릴수록 더욱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이 된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다르다. 터키에서는 여자들은

서로 포옹하면서 인사를 하며, 남자들은 대부분 악수로 인사하며 가까운 사이에 악수하고 나서 포옹하는 경우도 있다. 터키보다 이슬람에서 하느님 (알라) 외에 다른 사람, 물건 등 다른 무엇 앞에서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 예배를 할 때 하느님 앞에서만 허리를 숙인다. 그 뜻은 하느님이 위대하고 그 무엇도 하느님보다 위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허리를 굽히는 것 혹은 숙이는 것은 한국에서 인사 방식이며, 이슬람에서 인사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함을 인정하여 보여드리는 의미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이슬람에서 사람은 민족, 지위, 종교 등과 상관없이 다 평등하다고 알려준다. 그러므로 하느님 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터키와 한국의 인사방식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두 문화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나는데.. 사람들의 인사 방식이 터키와 달랐어요. 한국에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것이 신기했어요. 우리 터키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F2의 이야기)

터키와 비슷한 점 중에 하나는 효도와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부모 존경을 저도 존중해요. (M2의 이야기)

M3은 무슬림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7살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다. 남편이 무슬림이지만 시부모님이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설날 같은 특별한 날에 남편은 세배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기는 전혀 안하며, 아들에게도 못 하게 한다고 이야기했다. 즉, 아버지가 한국 문화를 지키더라도 어머니는 무슬림으로서 아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반대를 한다고 했다.

한국 문화가 터키 문화랑 가까워요. 아예 똑같은 것들도 있고.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세배예요. 저는 세배라는 전통에 반대예요. 저는 무슬림이에요. 먼저 무슬림으로서 인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터키나 한국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대하는 점들이 있어요. 저는 사람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을 싫어요. 저는 알라(Allah) 앞에서만 예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억지로 저를 자기 앞에서 숙이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아버지가 자기한테 세배 하라고 했더라도 안했을건데.. 이것 말고 문화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하는 건 없어요. 우리 남편은 세배를 지키는데 아들에게 시키지 못하게 해요. 제가 반대해서요. (M3의 이야기)

아버지들과 달리 어머니들은 대부분 남편이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남편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으며, 무엇을 기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남편이 알려준 만큼 알고 왔다고 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남편이(그 당시 남자친구) 한국에 간다 그럴때 놀랐어요. 거기 어디냐고? 나중에 남편이 항상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이렇다, 한국이 저렇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하다고. 삼성, 현대 같은 회사들이 한국 것인지 이야기했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일본 것인 줄 알았으니까. 한국의 일반적인 얘기는 남편한테서 들은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예의를 많이 지킨다든 등. 남편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거기 가는데 거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땠는지.. 통화할 때마다 뭘 먹는지 물어봤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선 안심했어요. “아 거긴 그래도 안전한 곳이구나” 싶었어요.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고.. 남편이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왔어요. (M1의 이야기)

저희 남편이 항상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한국의 장점, 한국 사람들의 터키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 이야기했어요. (M2의 이야기)

연구자 자신의 경험도 고려해보면 터키와의 문화적인 유사한 점들은 한국에 대한 친근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그러한 친근감이나 유사한 점들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혹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왔을 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물론 힘들었죠.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기억이 잘 안나네요. (웃음) 물론 외국 나가면 음식 같은 거..음..또 외모가 다르잖아요. 한국인이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많이 쳐다보잖아요. 그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M7의 이야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좀 알고 왔었어요. 우리 문화와 유사하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예의를 잘 지키고, 집에 신발로 안 들어가고 등.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집에서 신발 신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미국을 헛갈려해요. 미국과의 문화 차이도 많잖아요. 우리는 한국 문화와 비슷한 면이 많아요. 특히 옛날을 생각하면.. 유사해서 문화충격 같은 것은 없었어요. 터키에 있었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으니까 알고 왔어요. (M3의 이야기)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언급했던 문화적인 차이는 대인관계와 관련 되는 부분이다. 연구참여자인 터키 부모의 전부가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 가장 언급을 많이 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친절함이 반드시 친밀감으로 연결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지만 친해지기 어렵다는 점도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 하였다. 터키 문화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집으로 초대하고 교류한다. 집에서 만나는 것을 통해 터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더욱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쉽게 친해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집에서 만나는 대신에 밖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카페에서 만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집에서 손님을 모신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속담 있을 만큼 터키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기도 하고 이슬람교에서도 손님 모신다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인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집에 가본 경험이 적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인들도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들로 느껴질 수 있다.

안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오픈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을 받으면 끝이에요. 자기들끼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여자들끼리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긴 하지만.. 대부분 소통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항상 자기 일로 바빠요. 아마 그 일로 관련 있는 사람이면 좀 더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이 아닌) 어머니라서 소외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서도 이런 거 더욱 어려워져요. 친한 한국인 친구가 없어요. (M5의 이야기)

M2는 터키어를 할 줄 아는 몇명 한국인과 친해졌지만 한국과 터키의 집에서 손님 모시기에 대한 문화 차이로 인해 한국인 친구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예의상 초대를 받아도 자기가 다른 사람 집에 가는 것이 불편해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우리 문화처럼 크게 준비를 하고 집에 초대하는 습관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초대하면 예의상 그들도 저를 초대하려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번거롭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 집에서

불편하다고 하고 우리 집에서 보자고 해서 최대한 그쪽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우리 집에서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요. (M2의 이야기)

M2는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없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당황했을 때가 있었다. 그 중에는 터키에서의 술 문화와 한국에서의 술 문화의 차이가 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슬람에서 술이 하람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사람도 많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최대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길거리에서 취한 사람 혹은 취해서 잠들어버린 사람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난 적은 없었지만 황당했던 적이 있어요. 밤늦은 시간에 주위의 사람들이 양복을 입은 채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어딘가에 취해 널브러진 모습이 아쉽고 당황스러웠어요. 사진 찍어서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터키에서 이런거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그것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네요. (M2의 이야기)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에 오기 전에 기대를 했느냐 혹은 어떤 기대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인 기대를 하거나 별 기대를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터키 문화의 유사성이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언어 장벽에 대한 인식

언어 장벽은 인터뷰 대상자 모두에게 영향이 있었으나 성별에 따라 영향의 방향이 달랐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회사 생활이 바쁘며,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할 시간이 없고, 또한 일을 영어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한국어 실력이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대부분 언어 문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언어의 장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머니들은 외로움을 느끼며, 사소한 이야기 밖에 못 한다는 것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터키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자녀양육과 집안 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여기 와서 특히 두 달 정도 언어를 모르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었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M4의 이야기)

M5같은 경우는 언어 문제도 있으나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으며, 한국 사람과 마주칠 기회도 잘 없는데, 언어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만나도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듯 보였다.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언어 문제가 있어요. 한국어를 못해요. 아주 초급이에요.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할 수 없어요. 안부만 묻고 더 이상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M5의 이야기)

M2 같은 경우는 친해지고 싶어도 언어의 미숙함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져 관계를 맺기 어려워 보였다. 원래 M2는 터키에서 문학을 전공했으며 고등학교 교사로 일도 했지만, 한국에 와서 그러한 실력을 활용하지 못 하는 것이 자신감을 잃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특히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머니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남편이 회사의 여자 임원들과 소개해서 같이 교육 프로그램과 회의에 참여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3년 터키에서 살았다가 돌아왔더니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려서 돌아오고 나서 자주 연락 못 했어요. 사실은 원하면 할 수도 있는데, 남편은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주위 높은 사람들이라 떨어진 한국어 실력으로 만나기 좀 민망해요. 그 분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카페 가서 친근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이고, 저한테 그런 진심을 보여주지만 언어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다가가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서요. 하지만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한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서로 문화교류를 하고 싶어요. (M2의 이야기)

반면 아버지들에게는 어머니들과 달리 언어가 사람을 어울리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음식 문화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아직 한국어가 서툴렀을 때 할랄 음식이란 개념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으며 그로 인해 식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코란에서 금지된 동물성 음식은 죽은 고기, 피. 하느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와 돼지고기로 정의된다. 그러나 비무슬림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돼지고기가 금지된 것이다. 비무슬림들에게 무슬림이라고 하면 돼지고기 안먹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알려주기에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 곤란함을 겪었다고 한다.

처음에 음식 문화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한테 “우리는 무슬림이에요 고기를 못먹어요”라고 하면은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요.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학생이었을 때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비빔밥

위에 고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직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 아줌마한테 ‘아줌마 제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어요 이게 할랄 아니에요’ 라고 이랬더니 아줌마가 ‘그게 뭐야?’ 라고 해서 고기를 그냥 빼는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그건 안돼요. (요리를 같이 안 해도 고기가 다른 음식에) 묻어서도 안되는 거잖아요. (F2의 이야기)

무슬림의 식생활은 할랄을 기반으로 하며 할랄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 터키에서 살았을 때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한국에 와서 신경 쓰게 되었으며, 힘들지만 종교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터키에서 살았을 때 터키 사람도 돼지고기와 돼지의 어떤 부분으로 만든 것만 먹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알았으나 돼지고기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먹는 것에 대해 겪게 된 경험으로 할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F1은 인사말보다도 먼저 주의해야 할 음식에 대한 단어들을 배웠다고 알려주었다.

터키에서 할랄인지 하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사먹는 게 익숙한데 여기 와서 할랄 하람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처음 배웠던 단어들은 “레시틴, 대두, 돼지”등이었어요. 먹는 것을 확인하느라 한국어 읽기를 스스로 배웠어요. 3개월 안에 배웠어요. (F1의 이야기)

F3은 처음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언어 문제도 해결되며, 할랄 음식 찾기도 쉽고, 상대적으로 무슬림이 더 많이 사는 이태원에서 살기 시작한 뒤에 삶이 편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처음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서울대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했어요. 학생이라서 그나마 편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라 쇼핑하거나 어디 놀러가는 것이 힘들었죠. 특히 무슬림이라서.

하지만 언어를 습득하고 나서 특히 이태원에서 살기 시작한 뒤에
편해졌어요. (F3의 이야기)

F3의 이야기를 들으면 언어와 할랄 음식 문제의 해결과 무슬림들과
가까이 살기 시작한 것을 통해 생긴 편안함은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어는 그 누구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소수자로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느 정도라도 대화가 가능해야 일상생활에 문제가 덜
생기고, 사람들과 굳이 친해지지 않더라도 대화를 이루면 그 사회와
문화에 접근하기도 쉬워지며 소외감을 덜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이 달랐다. 아버지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즉,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언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언어와 관련해서 언어 능통성이 낮았을 때 음식
문제로 인해 할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한다는 면에서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어머니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었으며 한국 사람들과도 친해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3) 한국에서의 다른 삶에 대한 기대

터키 출신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무슬림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많지만, 한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안전하고, 규칙적이고, 안정된 선진국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많았다. 김대성(2008)의 연구에 의하면 터키인 이주자들은
한국에서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키
인 이주자의 60.4%가 중간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말할 줄 알며 한국어
구사 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은 익숙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슬림
으로서 인정받고, 차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다.

큰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주지 않는 게 힘들잖아요. 외모 갖고 편견을 가지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히잡 쓰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피하거든요. 쉽게 다가오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고 서로 조금 알게 되고 나서 사람들이 왜 이거 쓰는지, 사람들이랑 친해질 때까지만 해도 안쓰면 안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뭘 입든, 어떻게 생겼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제 국경도 없는 시대인데 그런 차별이 없었으면 해요. (M7의 이야기)

F5은 자신보다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했다. 이슬람 문화원에서 일하는 F5은 자기 아들은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진 않지만 문화원을 다니는 무슬림 아이들의 부모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과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끼며, 아이들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국이나 다른 이슬람 나라로 유학을 보낸다고 이야기했다.

학교가 문제죠. 음식 문제 때문에.. 주변에 무슬림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이슬람 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터키에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 무슬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시설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부터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F3의 이야기)

M5은 한국에 적응이 비교적 덜 된 연구참여자였다. 미국에서 장기간 유학 생활을 했으며 첫째 아들을 미국에서 낳았다. 아들이 3살까지 미국에서 살았으며, 자신을 미국 사람으로 인식한다. M5은 아들이 터키어도 한국어도 못 하기 때문에 터키 사람과도 어울리지 못 하고, 한국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아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적응 문제에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M5은 자녀가 최대한 악영향을 받지 않게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노력하며 아리가 한국 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적응하도록 돕고 있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노력해요. 사람이라 그런 생각들이

날 때도 있죠.. 하지만 가능한 한 좋은 점들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잊혀져요. 여기의 편안함, 좋은 점들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인식만 갖고 살고 싶진 않아요..그러면 어머니의 일상도 우울해지고, 그러면 아이들도 당연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M5의 이야기)

2.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녀양육

1)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기

연구참여자들은 언어 장벽을 어느 정도 넘고 나서는 한국이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했다. 그들은 터키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기 어렵다기 보다는 한국에서 무슬림으로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즉, 한국인의 대부분이 비무슬림으로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며, 무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였다. 외국인에게 개방적이지 않던 한국의 최근에 많이 바뀌어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터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 외국인을 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서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무슬림의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며, 그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서 이해해주는데 무슬림으로서 이해해주지 못 해요. 그게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우리 식당 맞은편에 약국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저씨가 저를 부르고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너가 테러리스트냐고? 사람 죽이냐?”고 큰 소리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F1의 이야기)

무슬림에게는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 것만큼 할랄과 하람의 규칙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슬림의 식습관과 식사 문화가 상당히 다른 한국의 식습관 때문에 터키 부모는 힘들어 한다. 터키 무슬림들에게는 식문화는 단순히 어떤 음식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특히 육류의 경우에는 할랄 방식으로 도축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음식을 먹고 난 이후 설거지를 하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식당에 가서 먹으려고 할 때 같은 식당에서 금기된 음식도 만들며, 허용된 음식도 만드는데, 이 경우 설거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먹는 것이 의심스러워지게 된다.

처음 왔을 때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돼지고기 안먹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운이 좋은 것은 1년 정도 터키에서 같이 살았던 한국인 친구 집에서 사는 거였어요. 친구가 도와줬어요. (M3의 이야기)

원래 무슬림이라서 할랄 음식 찾기 힘들어 밖에서 뭘 먹는 게 어려워서 못 먹는데, 설거지 방식이 저희와 안맞아서도 문제예요. 그래서 집 밖에 다른 곳에서 밥 먹거나 숙박하는 것이 문제예요. (M2의 이야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슬람에서는 음식을 만드는데 모든 단계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돼지고기를 만들었던 냄비에 다른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된다.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

앞에 설명했듯이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가공식품의 성분에도 동물성 유화제, 레시틴, 젤라틴 등 많이 들어가며, 성분에 들어가지 않아도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무슬림이 섭취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많은 사람이 처음에 모르고 돼지

고기만 들어가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연구자 본인도 처음에 주변에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무슬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지식을 알지 못 해, 돼지고기 여부만을 확인하고 먹었다. 이러한 경험도 한국에 처음 오게 된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무슬림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한국에서 조리법이나 음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구자 본인도 그러했듯이 모르고 먹었지만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무슬림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문제는 무슬림들에게 사회적 측면에서 어려우며 소외감을 경험하게 한다. 터키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터키와 달리 서로 집에 초대해서 경우보다 밖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무슬림들에게는 이 또한 어렵다. 함께 식사할 음식의 종류나 식당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식을 나누지 않더라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무슬림으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남자체를 피하거나,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기대한다.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식생활 문제를 넘어서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이고, 식생활 문제도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해결 못 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아이 키우기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아이 키우는데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은 음식 문제였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돼지고기 먹으면 안된다는 문제

가 아니다. 유화제나 젤라틴 같은 돼지의 어떤 부분으로도 만든 것이 들어가는 것조차 안된다. 그러나 한국 과자에 많이 들어간 성분들이기에 예상치 못 하는 과자 안에 들어갈 때도 있다. 부모들은 그런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길가에서 아줌마나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예뻐서 과자나 사탕을 주는데 아이들에게 함부로 먹일 수도 없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또한 아이들에게 왜 그것을 먹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부모가 곁에 있을 때 해결이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학교 생활 때문에 걱정이 많다.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는데 다른 음식 먹게 해주어도 아이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나와 다름을 잘 받아주지 않는 또래문화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개인차가 있었다. 민감하게 행동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부모도 있었다.

M1은 자신의 부모도 교사였으며 규율이 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배경과 성격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어려웠다. M1은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경험했던 어려움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한국 아이들과 별 다름없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입맛이 한국인 입맛이 된것 같아요. 금지는 안해요. 고기는 원래 많이 안 나와요. 보통 미역, 김밥 같은 것들 나오는데 저는 뭐든지 먹었으면 해요. 한국 사람과 같이 사는데 적응을 잘 하고 잘 어울려야 돼요. 피하면 피할수록 소외를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산다면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7년을 더 여기에 있을 거고 실은 돌아갈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피하게 할 수 없어요. 저는 터키 문화만을 25년 동안 경험해온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외국인들과 어울리지 못 해요. 부모님도 교사라서 규율적인 환경에서 살았어요. 저에게 영향이 커요. 그래서 아들이

저를 안 닦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낮은 편이에요 특히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아들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과도 만날 수 있게 노력을 해요. 한국 학교를 다니는데 뭐든지 먹어도 돼요. 무언가를 금지 하면 더욱 매력적이잖아요. (M1의 이야기)

M2는 M1과 달리 음식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생각을 하며 음식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국제 학교에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식 문제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사탕, 과자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걸 조심해야 해서 아이들에게 아무거나 안 먹여요. 터키에서 사람들도 믿고, 먹는 것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먹으면 안되는 것을 혹시 받아서 먹을 까봐 걱정이 돼요. 맛있는 초콜릿, 사탕, 과자를 눈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못 먹어요. 아이들에게 항상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예의대로 받으라고 하지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터키에서 신경도 안 쓰던 일인데 여기서 문제 되더라고요. (M2의 이야기)

음식 문제를 아이에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머니들의 방식이 달랐다. 어떤 어머니는 종교적인 이유로 먹으면 안된다고 강조를 하지만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어릴 때 못 먹는 것에 대해 가르쳐줄 때 종교적인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고나서 종교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음식을 먹어서 안되는 종교적 이유를 설명했다고 했다.

저는 우리가 무슬림이라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강조해요. 어린이 집 담당자에게도 우리는 돼지고기 먹지 않으니 절대 주지 말라고 했어요. (M3의 이야기)

이슬람에서 아주 중요한 거 먹는 거. 한국에서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거. 근데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도 밖에서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종교 때문에 안 먹는 거랑 알레르기 때문에 안먹는 게. 아예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어렸을 때 종교라는 얘기도 잘 안했어요. 우리 안 먹는 것들도 있다 그런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이해가 넓어질 때 얘기는 했죠. 밖에 나가면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택권이 별로 없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제 힘들다고 얘기 안해요. 우리는 아무거나 안먹는데 원래 아무거나 먹는 것이 건강하지도 않잖아요. (M7의 이야기)

길에서 가다가 친절할 아줌마들 할머니들 먹을 거 주는데 우리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 받아도 아이한테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게 하는게 힘들어요. 뭔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엄마 뭐가 있어? 그거 있다고 하면 그거 왜 들어가 있어? 자꾸 설명이 힘든 질문을 물어봐요. 그런데 첫째 딸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거 먹으면 안된다고 하면 그냥 안먹어요. (F1의 이야기)

종교적인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동일하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보다 모범적으로 집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직접 가르쳐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했다.

모범으로만 아니라 특별히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명절에는(종교적인 명절) 여기서 명절 분위기도 없고, 인사할 사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옷, 새로운 선물 사줘요. 명절에 선물 주고받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명절날에 다 같이 새로운 옷 입고 선물 주고 받고, 아이들은 저와 남편의 손에 뽀뽀하고 명절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가족끼리 나가서 놀고 와요. 명절에는 명절 대청소도 다

하고 터키에서 명절 보내는 것과 같은 과정을 다 해요. (M2의 이야기)

터키에서 명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라마단 명절, 하나는 희생명절이다. 한국에서 추석이나 설날을 보내는 것과 비슷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온가족이 모아 명절을 보낸다. 명절 전에 대청소 하고, 새로운 옷 사고, 서로 선물 사주거나 어른들은 자기에 인사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 인사 방식은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 더 많은 사람의 손등을 살짝 뽀뽀하고 이마를 닿게 하는 것이다. 다른 부모들도 대부분 기도나 일상생활의 관습들을 모범으로 배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명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다른 부모들 또한 명절에는 최대한 터키에서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 달라진 부모의 역할

이미 한국에 적응한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된 어머니들에게는 외국에서의 생활 자체가 힘들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언어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 등의 이유로 처음에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터키에서 전통적으로 어머니라는 개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위해 뭐든지 희생하는 존재”이며 대부분 자녀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는 것에 적응하는데 있어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자녀보다 우선이 되는 것으로 사고방식이 변하게 된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양육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들은 자녀보다 주로 자기와 관련 되는 답을 하였다.

한국에서.. 힘들어요.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언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도 배울 수 있고 기회는 많은데 우리는 언어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아이를 학교로 데려가는데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의사소통) 잘 안돼요. 이제 많이 알아들어요. 아들을 처음 학교 보냈을 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궁금한 것 모두 물어볼 수도 없고 아니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거나 조언을 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해요. (M5의 이야기)

그 외에 양육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터키에 있으면 어머니가 필요할 때 자기의 어머니, 시어머니, 친척이나 이웃집 친구 등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한국에서 기댈 만한 사람이 없고, 아무리 같은 터키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서로 다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양육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끔 "어머니가 여기 있었으면 아이 잠깐 두고 할일을 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온지 2년 됐어요. 여기 있는 터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뭐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긴 하지만 다들 다 자기 아이 있고, 자기 생활로 바쁘고.. 많은 터키 가족이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부탁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바쁘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부담주고 싶지 않아요. (M5의 이야기)

터키에서는 여자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 외에도 집안일, 요리를 교육시킨다. 여자는 요리도 잘 해야 하며, 집안일도 잘 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현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는데도 여자는 사회생활도 하면서 집안과 양육까지 전담해야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어머니로서 외국에서 살면서 문화적응 과정을 겪으며, 힘들때 도와줄 누군가가 없다는 것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고, 복잡해진 역할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도 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어머니랑 지금은 많이 달라요. 지금 이 시대 어머니들은 힘들어요. 우리도 머리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어머니 역할도 잘 할 거야"라고 해서 사회로 보냈는데, 인생은 마치 "그렇게 쉬울 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다 그래요. 남편과 의사소통하기도 어렵고. 가정주부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기대가 똑같아요.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해야 한다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야 한다고. 남자들은 별로 도와줄 생각은 없고, 가급적이면 도망치고, 만약에 일을 맡기게 되면 대충대충 해요. 여자의 민감성이랑 남자의 민감성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터키, 한국, 미국 다 그래요. (M5의 이야기)

혼자서 양육을 책임져야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터키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양육에 있어 간섭과 평가를 많이 하는 편이다. 양육을 할 때 어머니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반면 양육에 있어 독립적이며 편리하다. 어머니들은 한국에서 육아를 하는 것이 어떠한 질문에 누군가가 간섭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대답하였다.

터키에서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어요. 영국에서 시작했고 여기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한국에 있다고 어려운 점은 없어요. 오히려 더 편한 거 같아요. 영국에서도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터키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평가도 많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꼭 뭐라고 해요.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고민이 없어서 더 편해요. (M6의 이야기)

자녀양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대답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적응을 자기의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다.

반면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였다. 원래 터키에서는 아버지가 경제적인 부분을 맡고, 집안 생활보단 바깥에서의 생활을 많이 하며, 자녀의 먹을거리, 학교 문제 등은 어머니가 맡지만, 한국에 사는 무슬림 아버지는 자녀의 사소한 일상생활에까지 관여하였다. 무엇보다 자녀의 먹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으며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아들이 아직 세 살밖에 안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문제는 단 하나예요. 음식 문제. 그것 때문에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저희 이슬람 문화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슬람 학교 여는 것을 요청해요. (F3의 이야기)

한국 사람한테 “우리는 무슬림이에요, 고기를 못 먹어요.” 라고 하면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요.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F2의 이야기)

어떤 아버지들은 할랄과 하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고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의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하였다.

우리 아들한테 하람 고기를 못 먹이게 우리 아들이 고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고기 나온 날은 우리한테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집에서 다른 도시락을 싸 보낼게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고기가 나온 날에 이태원에서 사온 고기를 집에서 준비한 양념이랑 같이 보내요.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아이에게 알레르기가 안 생기도록 양념을 해서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익혔던 냄비나 후라이팬을 사용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후라이팬 하나 사서 우리 아들 거는 이걸로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F2의 이야기)

한국에서 거주하는 터키 부모들은 흥미롭게도 한국에서의 삶이 부모 역할이 변하게 했다. 가족의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아버지가 이제 자녀의 사소한 일상까지 관여한 반면, 어머니들은 자기 문제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다.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족 중에서 무슬림 부모의 한국사회 적응과정과 자녀양육 경험을 살펴보았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 가족 중에서 터키출신 연구자가 터키어와 터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터키인 무슬림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무슬림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터키인 무슬림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의 이론적 틀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행연구와 Berry의 문화적응이론으로 무슬림 가족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방식을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다문화가족에게 서구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주연구 참여자인 터키인 무슬림 부모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이주한 경우였기 때문에 문화적응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 John Berry는 문화적응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문화적응은 그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이야기에 따르면, 문화적응은 단순하게 하나의 유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하나 이상의 문화적응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인 터키인 어머니와 아버지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터키인 무슬림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응유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터키인 무슬림 어머니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

응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 했다. 반면 터키인 무슬림 아버지들은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와 낯선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터키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힘들었던 요소들은 유사했으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다. 특히 낯선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적응이 아니라 자녀들을 함께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과 변화도 연구참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학력이 높은 수준이며, 터키에 있었을 때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활발한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갑자기 자신의 학력과 사회생활의 경험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가정주부로서의 제한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무엇보다 언어 문제로 인해 가족구성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의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삶의 어려움이 어머니들의 역할과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터키에서도 원래 어머니는 자신보다 언제나 먼저 자녀들을 생각하지만, 한국에 이주해 온 터키 어머니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좀 더 앞서 말했다. 어머니들에게 낯선 한국어라는 언어가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쳐,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장애물이 된다. 반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어머니들과 다른 방식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받아들였다. 아버지들도 한국어에 서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아버지들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들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은 큰 어려움이 되지만, 일을 하기 위해 오게 된 한국에서 아버지들에게 우선순위는 직장생활에서의 적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적응과정이 달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들과 달리 아버지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슬림으로서의 생활방식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할랄-하람이 어떤 의

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부모 역할의 변화를 경험한다. 터키도 한국처럼 어머니가 사소한 일까지 자녀의 모든 것에 관여하고 챙기며, 아버지는 주로 경제적인 책임지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연결 시켜 이야기를 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언어 문제로 인해 힘들다고, 선생님들과 제대로 소통이 안된다고 대답을 했다. 반면 아버지들은 자녀를 무슬림으로서 키운다는 것이 힘들다고 대답을 했으며, 자녀의 식생활과 사소한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터키 아버지들에게 터키에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자녀들의 일상생활이 아버지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자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관여를 하게 되었다. 터키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지만,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할랄과 하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무슬림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무슬림에게는 할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며 엄격한 개념이다. 할랄이라고 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나라에서 무슬림은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랄이란 생활하는데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식생활뿐만이 아니라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과정에서 사용하는 조리도구의 선택과 식사를 하고 난 후 설거지를 하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된다. 또한 말투, 인사 방식, 옷 입는 방식, 목욕 방식, 화장실에서 신변처리의 방식까지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엄격한 규칙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하는 것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경험들로부터 조금씩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키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슬람교에 대한 인식과 무슬림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대처방법들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어린이집 보내는 어떤 부모는 돼지고기 금기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슬림이라는 것을 밝히는 대신에 고기 알레르기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문화적응이란 다수집단 안에 들어간 소수집단이 겪어보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양쪽 집단 모두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익숙해가는 과정이어야 건강한 문화적응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한국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여전히 소극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무슬림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으나 한국이 안정적이며, 규칙적인 선진국이므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터키인 무슬림이 원하는 것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고정관념, 편견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이슬람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학교 시설이나 만드는 것을 원한다.

2. 의의와 한계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주자인 무슬림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거주 무슬림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대부

분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로 한국거주 무슬림의 문화적응과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무슬림들 사이에도 출신 국가나 지역의 문화에 따라 생활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 출신의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한국거주 무슬림들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터키 무슬림 부모의 문화적응과 양육경험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부모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가족과 함께 한국에 이주하게 된 터키 부모의 적응과정이 다른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의 적응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온 이주자들을 혼자서 적응을 해야 하지만 가족과 함께 이주한 터키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있는 점에서도 한국 문화가 터키 문화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다른 다문화 가정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족 내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적응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였다.

셋째,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부모들의 자녀양육 경험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자녀의 사소한 일상생활에까지 관여하게 되었다. 또한 터키인 무슬림 어머니들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이 쉽지는 않지만 아버지들의 역할 변화로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는 경험과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와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터키출신 무슬림 어머니와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세계 인구의 25%정도를 차지하는 무슬림은 다양하며, 출신국가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무슬림들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한국과 터키인 무슬림의 사례만을 다루었으며 다른 나라 무슬림들의 경험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이다.

둘째, 터키인 어머니, 터키인 아버지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으나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소수집단인 한국인 무슬림 부모들의 문화적응과 자녀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한국거주 무슬림들의 문화적응과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 사회의 무슬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권미경(2009).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발달적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윤정(2016).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대상 집단놀이치료 사례연구. 심리적 의상의 회복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이중·김정임·김승훈(1988). 한국 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 연구. *계몽 아동 연구서*, 2, 197.
- 김귀옥(2000).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의 모색.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53-360.
- 김대웅(2016).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 경험과 남한사회 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성(2008). 한국 사회 내 터키인 무슬림 이주자의 현황 및 사회적 조직. *한국이슬람학회*, 18(3), 27-64.
- 김대성(2009). 한국거주 터키인과 이란인의 국제혼과 문화적응의 관한 연구. *중동연구*, 28(1), 1-39.
- 김수재(2006).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갈등과 적응전략: 광주외국인 노동자센터 내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사례.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서 기본 연구보고서*, 1-204.
- 김정위(1998). 특집: 이슬람의 문화적 전통과 중동 각국의 종교정책: 제1차년도; 후기. *중동연구*, 17(1), 383-385.
- 김종도·최영길(2014). 신앙과 음식: 이슬람 음식법에 관한 연구: 꾸란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문총*, 34(4), 183-204.
- 김종도(2016). 한국의 할랄산업 연구현황. *중동문제연구*, 15(4), 201-225.
- 김지윤(2014). 달한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 김희정(2015).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과 애착양상 및 문제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부현·김지나(2016). 고려인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통한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우즈베키스탄 출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숙·최상진·박광배·김주한(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1(2), 97-139.
- 박영아(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보육교사의 보육경험 실태. *한국유아교육학회*, 30(1), 197-223.
- 박종철·김영윤·이우영(1996).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박지은(2016). QR code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역량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진경·김수완·이희열·정장호·홍완수(2014). 할랄 인증제에 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인식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35(1), 197-229.
- 서범중(2013). 이슬람 교육의 이해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9(2), 167-187.
- 송도영(2011). 한국 내 이슬람(할랄)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중동학회논총*, 32(1), 217-249.
- 송도영(2014). 국내 무슬림 이주자들의 생활영역과 초국적 성격: 서울 이태원 출입 무슬림의 사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4(2), 113-153.
- 신정희(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청소년 상담연구*, 21(2), 449-476.
- 안정국(2007). 한국 이주 인도네시아 여성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 30(1), 217-256.

- 양옥경(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엄익란(2011). 할랄, 신이 허락한 음식만 먹는다 : 아랍음식과 문화코드 탐험. 과주: 한울 출판사.
- 오상은·조인숙(2011). 학령기 아동 부모의 가족기능과 양육태도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5(2), 111-120.
- 오종진(2009). 한국사회에서의 중앙아시아 이주 무슬림들의 혼인과 정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크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출신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 회논총*, 30(1), 257-293.
- 윤재희·유향선(2011).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하기.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1, 41-80.
- 윤희중(2013). 다문화사회 적응에 대한 국내 이주무슬림의 인식분석.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32(3), 155-178.
- 이길연(2014년 7월 31일). 인터뷰. *매일종교신문*.
<http://www.dailywrn.com>
- 이선영(2007).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서법조동사의 코퍼스 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슬람교 쿠란
- 이용승·이용재(201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베트남과 필리핀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2(1), 163-185.
- 이진숙·한지현(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1), 183-199.
- 이희수·조영주(2012). 한국의 무슬림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응방식과 신앙생활 조사 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33(1), 133-163.
- 정선영(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지식과 문화적응 유형의 매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34(2), 43-61.
- 정진경·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조용환(2002).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조영달(2015). 질적연구 방법론: 학교와 수업 연구의 새 지평 (이론편,실
제편). 서울: 도서출판 드림피크.

조민경·김렬(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
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263-289.

조희선(2009).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
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0(1), 169-215.

최영길(1997). 이슬람에서 허용된 음식과 금지된 음식. *인문과학연구논
총*, 16, 299-317.

최운선(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46(1), 141-181.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
복지학*, 61(1), 163-194.

텐옥사나(2011). 러시아 사할린 한인의 민족정체성: 우즈베키스탄 고려
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성열·채정민(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101-126.

한준상·박현숙·기영화·강양원·메리엄(2002). 조기유학생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9(1),
199-220.

허미화(2009). 국제결혼한 몽골어머니들의 정체성과 유아의 의미. *한국
영유아학회지*, 59(1), 273-303.

홍성희(2012). 다문화가족의 문화차이 인식과 문화적응의 양상.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2), 153-172.

홍완수(2015). 할랄 식품 산업과 할랄 인증. *중동문제연구*, 15(4),
201-225.

Azmi, J. (2003). Halal Food, Kuala Lumpur: A Guide to Good Eating:

Kuala Lumpur: KasehDia Sdn. Bhd.

- Berry, J. W. (1992). Acculturation and adop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 69-8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68.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 - 712
- Berry, J. W., Phinney, J. S., Sam, L. D.,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 303-332.
- Berry, J. W., & Sam, L. D. (2010).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5*, 472-481.
- Bochner, S. (1972). Problems in culture learning. In S. Bochner & P. Wicks (Eds.), *Overseas Students in Australia (pp. 65 - 81)*. Sydney, Australia: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 Cabassa, L. J. (2003). Measuring acculturatio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5*, 127 - 146.
- Chung, J. K., Chung, B. H., & Yang, K. M. (2004).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s in South Korean schools. *Unification Issues Studies, 11*, 209-239.
- Holstein, J. A., & Gubrium, J. F. (199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aves, T. D.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3*, 337 - 350.

- Kosum, A. (2013). Livestock fattening in the production of animal products and permissibility of these products in Islam. *Journal of Islamic Law Studies*, 22, 11-18.
- Irving Seidman (2009).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박혜준, 이승연 옮김). 서울: 학지사.
- Kurtoglu, R., & Cicek, B. (2013). A research to determine consumers' perceptions attitudes and expectations towards Halal products. *Eskisehir Osmangazi University IBFF Journal*, 8, 188-205.
- Okur, K. H. (2009). Permissible (Halal) and forbidden (Haram) foods in terms of Islamic law and some current issues. *Usûl Journal*, 11, 7-40.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Schwandt, T. A. (1998).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Thousand Oaks, CA: Sage.
- Ward, C., Bochner, S., & Fur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London : Routledge.
-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56, 1 - 19.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실 (<https://www.immigration.go.kr>)

Abstract

Muslim Turkish Parents' Acculturation and Child Rearing in Korea

Betul Tinkilic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out of a wide rang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adaptation of Muslim Turkish parents to the Korean society, and their child-rearing methods. Data was collected for this study by interviewing 7 Turkey-Muslim mothers and 4 Turkey-Muslim fathers, between September 28, 2016, to February 1, 2017.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types of adaptation processes of Turkey-Muslim mothers, Turkey-Muslim fathers were slightly different. While Turkey-Muslim mothers put in a lot of effort in trying to adapt to the Korean society, unfamiliarity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the Korean culture made it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or adapt to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despite facing difficulties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the unfamiliar Korean culture, Turkey-Muslim

fathers were the most aggressive in their efforts to acclimate with the Korea society. The differences in the processes of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between mothers and fathers were also noticeable in their child-rearing methods.

Secondly, it was discovered that in their efforts to adapt to the Korean society, parents changed the way they raised their children. As is the case in both countries, mothers are often expected to participate in every small activity pertaining to the children, whereas fathers are expected to b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the family. However, while undergoing the adaptation process to the Korean society, although Turkey-Muslim mothers worry about their children but they connect the experiences to their own difficulties. On the other hands, fathers expressed concerns about raising their children as Muslims, and worried about everything from their eating habits to their everyday experiences. Although it was a part of everyday life, in Korea, parents had to think often about 'Halal' and 'Haram', and constantly be on their toes when trying to raise Muslim children.

Finally, the thing of greatest concern and importance to parents was living in the Kroeas as a Muslim. To a Muslim, the concept of Halal is of extreme importance. Therefore, the matter that most concerns Turkey-Muslim parents with regards to raising their children, is the process of keeping to the Muslim lifestyle in the Korean society. On order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individual has to be alert and responsible for developing coping methods, especially in a Korean society where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towards Islam, and the Muslim lifestyle.

keywords : Muslim parents, acculturation, rearing, social identity

Student Number : 2014-25259